

일자리 없어서... 광주 '과학기술 인재' 다 떠난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보고서...5년간 1만3929명 유출 '전국 4번째' 기업 채용 타지역 인력시장 의존 반복...4차산업 선도 위한 대책 시급

광주지역 과학기술 인재가 5년간 1만4000여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과 자율형자동차 산업 등 4차산업 대표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 유치하지 못한 채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이 최근 발간한 '부산시 과학기술 인재 취업이동 특성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광주에서 전국으로 빠져나간 과학기술 부문

대학 졸업자는 1만3929명에 달했다. 반면 광주로 유입된 과학기술 인력은 3301명에 불과했다.

이번 보고서는 BISTEP가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인재 유출 현황을 분석했는데, 2017년부터 대학 취업자 자료와 고용보험 자료가 연동됐다는 점에서 실제 대학 졸업자의 지역 이동 현황이 잘 드러난 최신 자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지역의 과학기술 인재 순이동 지수는 -1만 628명을 기록했다. 부산(-2만1635명)과 경북(-1

만2600명), 대구(-1만934명)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4번째로 인재의 유출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의 과학기술 인재들은 전남(3789명)으로의 유출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715명), 경기(2294명) 등 상당수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충남(958명)과 대전(710명) 등 충청권으로의 이동도 많았다.

또 대학원 이상 과학기술 인력은 2095명이 광주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역시 서울(471명)과 경기(385명) 등 수도권으로 가장 많이 빠져나갔으며, 전남(381명)과 대전(279명), 충남(103명) 등 호남·충청권으로 많이 떠났다.

광주지역 과학기술 인재 육성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는 ▲2017년 7856명 ▲2018년 7714명 ▲2019년 8096명 ▲2020년 7956명 ▲2021년 8212명 등 5년 동안 3만9834명의 인재를 키워냈다. 매년 약 8000명 수준이지만, 상당수가 광주를 벗어나 타지로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인재는 광주시가 4차산업 대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혁신의 핵심적인 주체이자 자산으로 꼽힌다. 애써 키워 놓은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지역 기업들은 숙련된 인재를 뽑기 위해 타 지역 인력시장에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지역 경제 구조 특성을 고려한 꼼꼼한 정책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앞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전성범 과장과 남기찬·조성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광주

전남 지역혁신체계의 기술·인력 자립기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인재들이 일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연구기술·개발직렬 대학 전공자의 지역 내 취업률은 41.6%에 그치면서 전국 특·광역시 평균인 43.8%를 밑돌았다.

전성범 한국은행 과장은 "광주에는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역량 있는 대학이 있지만, 배출되는 기술인력의 상당수가 외지에서 첫 직장을 잡는다"며 "이런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들이 연구인력을 채용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기업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8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구내식당에서 고병일(왼쪽 두번째) 광주은행장이 무료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어르신들에 보양식 무료 배식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봉사활동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8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구내식당에서 무료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최근 폭염으로 운영질한자가 폭증

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의 기력 회복을 위해 말복 맞이 전복삼계탕 1600인분을 정성스럽게 대접했다.

이날 봉사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30여명이 함께했으며, 이귀순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15명의 시의원들이 동참했다.

삼계탕 배식 후에는 부채를 전달하며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라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번 배식 봉사활동이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나눈 봉사의 기업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앙공원 품은 '위파크 더 센트럴' 분양

호반·라인건설, 695세대 14·16일 특별공급·청약

호반건설과 라인건설이 광주시 서구 품암동 중앙공원2지구에 공급하는 '위파크 더 센트럴'이 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조감도>
위파크 더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 84-104㎡ 총 695가구로 조성된다. 전용 면적별로는 ▲84㎡A 173가구 ▲84㎡B 354가구 ▲104㎡ 168가구다.

오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로, 계약은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광주시, 전남도 거주자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

호반건설과 라인건설이 마곡공원에 이어 광주에서 두 번째로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로, 전체 사업부지 중 대부분을 광주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일부에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중앙공원2지구는 재생의 숲, 물의 정원 등 다양한 테마정원으로 꾸며지며, 중앙공원의 풍부한 녹지와 단지내 산책로가 연계된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원광대병원역과 월드컵경기장역이 예정돼 있고, 금화로와 회재로, 월드컵4강로, 제2순환도로 등 교통인프라도 갖췄다는 평가다.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으로, 중앙공원과 바로 연결되는 통로도 조성할 방침이다.

분양 관계자는 "광주 중앙공원 안에 조성되는 아파트인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최근 광주지역 분양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위파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위파크 더 센트럴 견본주택은 광주시 서구 상촌동 956-7에 마련, 입주예정일은 2026년 8월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KT, 진도 치매 안심마을 70가구 'TV케어' 셋톱박스 활용 시청 패턴 탐지...이상 감지시 상황 안내·응급조치



진도군 보건소 직원이KT의 '지니 TV 케어' 서비스 사용 방법을 마을 주민한테 알려주고 있다. <KT 제공>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는 진도군 보건소 등록 환자 및 치매 안심마을 주민 70가구를 대상으로 AI 케어 서비스 '지니 TV 케어'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니 TV 케어는 진도군 '1인 가구 치매·고독사 예방사업'의 하나로, 셋톱박스를 활용해 이용자의 TV 시청 패턴과 채널변경 빈도를 분석한 뒤 치매 가능성을 조기 탐지하는 서비스다.

일정 시간 이상 TV가 꺼져 있거나 동일 채널 시청 상태가 이어지는 등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보건소 담당자와 보호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상황을 알려준다.

또 위급상황 발생 시 '지니아! 살려줘'와 같이 말하면 지니 TV 케어-KT텔레캅 -119 안전신고센터 연동 체계를 통해 실시간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정용 본부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4.5%로 가장 높은 지역인만큼 취약계층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와주는 AI 케어 서비스 안전망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민 기자 lyb54@kwangju.co.kr

광주 中企 7개사, 도쿄서 270만 달러 수출 계약

'선물용품 잡화 전시회' 327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2023 일본-도쿄 선물용품 잡화 전시회'에 참가한 지역 기업들이 수출상담액 327만 달러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광주상회는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해당 전시회에 ㈜보타스튜디오, ㈜레드포인트, 브랜드지움, 메카라인, 정린네(주), 위로푸드, ㈜셀핏 등 광주 지역 중소기업 7개사의 참가를 지원했다.

이들 기업들은 전시회 참가 이후 수출상담액 327만 달러를 비롯해 수출계약 진행 270만 달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쿄 선물용품 잡화 전시회' 첫 참가를 통해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통해 일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장품 제조 및 판매회사인 브랜드지움은

전시회 기간 일본 내 최대 홈쇼핑 방송사와 3회 이상의 제품판매 방송 및 수출계약을 체결, 첫회 방송 26분 만에 완판을 이어가면서 회당 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참가한 대규모 전시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시와 협력해 지역 수출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태풍 대비' 광주 산단 공사현장 안전 점검

산단공단, 지식산업센터 방문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는 태풍과 폭염 등 여름철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광주지역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 안전상황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북상하고 있는 태풍 '키누'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강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황상현 본부장 등 산단공단 관계자들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하나로 건설 중인 광주첨단산단과 분촌산단의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공장을 방문, 현장 구조물의 전도 예방과 집중호우 취약구간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폭염으로 인한 운영질한 예방, 화재 및 추락사고 등 현장 관리 실태 등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73.98 (-6.73)
↓ 코스닥	892.34 (-5.88)
↓ 금리(국고채 3년)	3.670 (-0.019)
↑ 환율(USD)	1315.70 (+9.50)